

“봄꽃과 함께 순천의 맛 느껴요” 7일간 미식주간 행사

순천시, 29일~4월4일 순천만국가정원 등서... “제철 음식 즐기며 낭만과 즐거움 만끽하세요”

전남 순천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순천의 맛, 봄’을 주제로 ‘2025 순천미식주간’을 진행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미식주간 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페이스 허브와 도심 곳곳을 무대로 관광객과 시민 참여 속에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순천 맛집 인증식’ ‘미식 워크숍 및 푸드 쇼’ ‘지역 셰프들과의 토크엔터테인먼트’ ‘포트럭 파티’ ‘차 명인과 함께하는 티마카세’ 등이 마련됐다. 미식 워크숍의 경우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대한민국 제16대 조리 명장인 안유성 셰프가 참여해 남도 음식과 식문화에 관해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또 봄꽃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을 배

경으로 순천의 제철 음식을 즐기는 정원 미식 피크닉 공간도 준비됐다. 이외에도 낙안읍성의 전통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낙안풍류 미식 낭만 투어’,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배우는 ‘시장 상인과 함께하는 전통 시장 투어’ 등 다채로운 미식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의 즐거움을 더해줄 전망이다. 순천시는 미식주간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독창적인 미식도시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부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수립한 ‘생태미식도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메가트렌드인 비건(채식) 메뉴 개발, 순천 인기 메뉴 간편식 출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미



식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제철을 맞은 다양한 음식과 낭만이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3억 원(국비 16억 원, 군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보건지소 등 6개소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시산보건지소 등 6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총 12억 원(국·도비 10억 원, 군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고흥군(공영민 군수)은 1차 의료서비스 제공하며 의료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보건진료소 2개소(동일면 덕흥리, 점암면 여호리)를 올해 안에 신규 개소할 예정이며, 관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 12개소의 시설 개보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고, 대신 보건 의료 전담 공무원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지역주민들과

고흥군,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보건진료소 2개소 신설’ 동일면 덕흥·점암면 여호 보건진료소 올해 말 개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며, 특히 고흥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고흥군은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

료소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통과해, 현재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건

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3억 원(국비 16억 원, 군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보건지소 등 6개소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시산보건지소 등 6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총 12억 원(국·도비 10억 원, 군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성군, ‘명품 천년 비자숲’ 조성 뛰어든다

올해 축령산 인근 시범식재로 확대 조성 첫걸음

장성군이 조림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0헥타르(ha) 면적에 편백나무, 목백합, 상수리나무 등 20여만 본을 식재한다. 특히, 비자나무숲 조성이 이목을 끈다. 장성군은 축령산 인근에 비자나무숲을 조성해 편백숲에 이은 또 하나의 ‘명품 천년 비자숲’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장성 축령산은 국내 최대규모 인공조림지인 편백숲으로 유명하다. 춘원 임종국 선생(1913~1987)이 21년간 나무를 심어 가꿨다. 오늘날에는 산림청이 숲의 가치를 인정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했다. 군은 축령산 편백숲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자나무숲 조성에 도전한다. 장성군과 비자나무는 인연이 깊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인 1962년,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북하면 약수리 산115-1)이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고려시대 때 객진

국사가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8~15미터까지 자라지만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이라 불릴 정도로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다. 목재의 질이 우수해 과거에는 최고급 바둑판이나 배를 제작하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독특한 모양의 이파리와 아름다운 나무 형태를 지녀 조경수로도 가치가 높다. 장성군은 비자나무가 지역의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종인 만큼, 축령산 하늘길 주변 5헥타르(ha) 시범식재를 시작으로 점차 숲의 규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선 2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향우들과 장성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비자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고향사랑이(에)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장성’ 또는 ‘숲길’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흥군, 산업안전보건 강화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장흥군은 25일, 관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43명을 대상으로 2025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현업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팀장급 관리자가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예방 대책, ▲현장 내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산발, 구제역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속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뤄졌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마을주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주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마을주치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운영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마을주치의 사업은 의료 취약지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농촌 돌봄서비스 모델이 되고자 추진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공중보건의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13개 읍·면 의료 인력이 주 1회 마을경로당과 거동 불편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 진료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김중환 기자



담양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

담양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담양군 식영정실에서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국체전 개요,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담양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